

유교와 불교 태교관(胎敎觀)의 교육적 의미

예 철 해

동국대학교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유교와 불교의 태교관을 비교하여 교육적 의미를 이끌어 내는 데에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유교와 불교에서의 태교의 의미와 목적, 수태관(受胎觀) 및 태아의 발달 단계, 그리고 태교의 방법을 비교해서 고찰하였다.

먼저 유교에서의 태교의 목적은 유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인 군자(君子)를 낳는 것이며, 불교에서의 태교의 목적은 지혜롭고 자비로운 자주적인 인간을 낳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수태관을 살펴보면 유교와 불교 모두 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육체적 결합 이외에 제3의 요인을 중요시하는 것이 드러났는데, 유교에서는 '유기(遊氣)'가 불교에서는 '중유(中有)'가 수태에서 중요한 정신적인 요인이었다. 그리고 태아의 발달 단계는 유교와 불교 모두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태아의 발달 단계는 현대의 산과학의 관점과 많은 점에서 일치하였다. 끝으로 태교의 방법은 유교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었으며, 불교의 태교 방법은 태교를 수행의 한 방편으로 보았을 때 사성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 전통적인 태교 방법인 유교와 불교의 태교관은 서구의 태교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현대의 태교에도 그대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적인 태교를 좀 더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태교 방법을 모색하도록 해야 하겠다.

핵심 주제어: 태교, 유교의 태교, 불교의 태교, 수태, 태아, 태아의 발달

I. 서 론

지금까지 태교(胎敎, prenatal training)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유아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비해서 교육학 분야에서는 그동안 태교론을 별로 다루지 않았으며, 혹 다루고 있다 해도 대부분 과거 선조들의 습속이나 지혜로서 소개하는 수준에 머무는 정도의 것이었다. 그러나 의학계에서는 산과학(産科學) 내지 인체발생학의 발달에 의해 임신부의 영양과 건강 및 정서에 따라 태아가 장차 육체적으로나 지능, 정서, 성격 등에 있어서나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 점차 분명해져 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선영은 태내(胎內)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최초의 중요한 환경이라고 보고, 태교의 문제가 교육실천학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¹⁾

태교는 태중교육(胎中敎育) 즉, 태(胎) 안에 있는 태아(胎兒)에 대한 교육이다. 태교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우선 사전적 정의는 “임신 중에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임부가 지켜야 할 규제(規制)”²⁾이다. 그리고 임신부가 임신 후 출산까지의 모든 행동을 조심하고 나쁜 생각이나 거친 행동을 삼가며 편안한 마음으로 말이나 행동을 할 때 태아에게 정서적·심리적·신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태중교육(胎中敎育)을 말한다. 그리고 교육학적 정의로는 유안진의 “임부가 태중의 아기를 인간으로 형성 발달시키기 위한 교육적인 노력”³⁾이라는 정의와 이홍우의 “모체가 그 정신 상태를 고귀하고 정결하게 가짐으로써 그와 동일한 정신 상태를 배속의 태아에게 전수해 주려고 하는 행위”⁴⁾라는 정의가 있다.

태교와 관련한 선행 연구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유교와 불교의 태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교의 태교관에 관한 연구는 김영철⁵⁾, 신수자⁶⁾, 장정호⁷⁾, 여정희⁸⁾ 등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들을 통해서 최근에 유교의 태교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불교의 태교관에 대한 연구는 황옥자⁹⁾,

1) 박선영, 《불교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1, 1995, 45-46.

2) 두산동아 백과사전연구소, 《두산세계대백과사전》 26, 서울: 두산 동아, 1996, 41쪽.

3) 유안진,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정민사, 1980, 24쪽.

4) 이홍우, 《증보 지식의 구조와 교과》, 서울: 교육과학사, 2002, 329쪽.

5) 김영철, 『태교신기』에 나타난 ‘존심’과 ‘정심’의 교육적 의미, 한국도덕교육학회, 《도덕교육연구》 17(1), 2005, 133-156.

6) 신수자, 전통 태교문화와 현대 태교문화 비교 - 「태교신기」와 문화기술을 중심으로 -,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7) 장정호, <유학교육론의 관점에서 본 『태교신기(胎敎新記)』의 태교론>,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회, 《대동문화연구》 50, 2005, 475-502.

8) 여정희, 「태교신기」의 태교사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9) 황옥자, 《불교아동교육론》, 서울: 불교시대사, 1994.

권은주¹⁰⁾, 백경임¹¹⁾, 김용희¹²⁾, 서우경¹³⁾의 연구가 있다. 또한 태교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태아에 관한 연구로 백경임¹⁴⁾의 연구와 수태에 관한 백경임¹⁵⁾, 그리고 권은주¹⁶⁾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교와 불교의 태교관을 비교하여 교육적 의미를 이끌어 내는 데에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유교와 불교에서의 태교의 의미와 목적, 수태관(受胎觀) 및 태아의 발달 단계, 그리고 태교의 방법을 비교해서 고찰한다. 이를 통하여 전통적 태교가 현대의 태교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II. 유교의 태교관

1. 유교에서의 태교의 의미와 목적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의 태교관은 중국의 유교적 태교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유교의 태교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의 유교적 태교론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중국 및 한국의 유교적 태교관의 바탕은 중국에서 최초로 태교가 실시된 지금으로부터 약 3천 년 이전인 주(周)나라 왕실의 태교이다. 이 시기의 일반적 태교 내용에 대한 자료는 한(漢) 가의(賈誼)의 『신서(新書)』 「태교(胎敎)」, 대덕(戴德)의 『대대례기(大戴禮記)』 「보부(保傅)」, 대성(戴聖)의 『예기(禮記)』 「내칙(內則)」 및 「월령(月令)」, 유향(劉向)의 『열녀전(烈女傳)』 「주실삼모(周室三母)」 등이 있다. 이후의 자료 중 주 왕실 및 선진(先秦) 시대의 태교 관련 내용은 모두 이들 자료에 나타난 내용의 반복이고, 우리나라의 유교적 태교론도 이들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¹⁷⁾

우리나라의 태교에 관한 자료들은 고려시대 말기의 정몽주의 모친 이씨가 쓴 『태중훈문(胎中訓文)』, 허준의 『동의보감(東醫寶鑑)』, 우암 송시열의 『계녀서』, 소혜황후 한씨의

10) 권은주, 《불교 아동학 개론》, 개정판, 서울: 양서원, 1999.

11) 백경임, <태교에 대한 부친의 인식 및 실천에 관한 조사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동국대학교 논문집》 24, 1985, 215-247.

12) 김용희, 불전에 나타난 태교사상에 관한 연구 -원시경전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13) 서우경, 불전에 나타난 태아의 생명존중관과 태교,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14) 백경임, <불전의 태아관 -태아발달단계설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회, 《한국불교학》 10, 1985, 113-133.

15) 백경임, <불교적 관점에서 본 수태·타태·출산>, 한국아동학회, 《아동학보》 7(1), 1986, 49-65.

16) 권은주, <인간·아동발달에 대한 불교이론 연구>, 한국불교학회, 《한국불교학》 14, 1989, 433-452.

17) 안경식, 《한국 전통 아동교육사상》, 서울: 학지사, 2005, 153쪽.

『내훈(內訓)』, 빙허각 이씨의 『규합총서(閨閣叢書)』, 해월 최시형의 『내칙(內則)』 등이 있다.¹⁸⁾ 하지만 이 자료들은 태교에 대하여 단편적으로만 기술되어 있다. 이에 비해서 조선 후기에 사주당 이씨(師朱堂 李氏)가 쓴 『태교신기(胎敎新記)』는 당시의 태교에 관한 자료를 집대성한 유교적 태교론의 대표적인 저서이다. 이 점은 태교신기를 저술한 동기에 대한 다음의 인용문에 잘 나타나 있다.

『여범(女範)』에 이르기를 “옛날에는 현명한 여인이 임신하면 태교 방법으로 반드시 몸가짐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 글들을 생각해 보아도 그 법이 상세한 것이 없다. 그래서 내 스스로 구해 보니 대개는 그 뜻을 언제나 알 수 있었다. 내 일찍이 시험 삼아 네 아이들을 임신하여 양육한 것을 기록하여 한편을 저술함으로써 모든 여인들이 보도록 하였는데, 이는 감히 내 멋대로 글을 지어 자랑하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내칙(內則)에 빠진 것을 갖추었으므로 이름하여 『태교신기(胎敎新記)』라 한다.¹⁹⁾

그리고 『태교신기』의 곳곳에서 유교의 문헌인 『시경(詩經)』, 『서경(書經)』, 『대학(大學)』, 『예기(禮記)』, 『열녀전(烈女傳)』, 등이 직접 인용되는 것에서도 『태교신기』가 당시의 유교의 태교를 집대성한 것을 알 수 있다. 『태교신기』에 나타난 유교 문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경』의 내용은 『태교신기』의 제1장 제3절에 “네 방에서 보아도 또한神明(神明)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느니라. 보이는 것이 없다 하여 나를 보는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귀신이 오는 것을 헤아리지 못할 뿐이니라”는 부분이 인용되고 있다. 또한 제3장 제1절에서는 『시경』에 나오는 “효자가 끊어지지 않아야 영원히 너에게 복을 주느니라”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제5장 제3절에 “가령 네가 아직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이미 자라서 자식을 낳아 품에 안고 있으니, 당연히 알고 있느니라”를 인용하고 있다. 또한 제7장 제2절에서는 “낙(樂)을 즐기는 군자는 복을 구하되, 복을 구함에는 사악한 마음이 없어야지 하나라도 사악한 마음이 있으면 복을 구하는 것은 불가하다”를 인용하고 있다.

『서경』의 경우에는 제6장 제1절에 “하늘이 지은 재앙은 피할 수 있으나, 자기가 지은 재앙은 도망갈 수도 없느니라” 부분이 인용되고 있다. 『대학의』 내용은 제5장 제2절에 “성실한 마음으로 구하면 비록 적중하지는 못하더라도 멀지는 않을 것이니라. (처녀들이) 자식 기르는 법을 다 배운 후에 시집가지는 않는다” 부분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제1장 제5절에서는 『예기』의 「학기(學記)」 편에 나오는 “훌륭하게 가르치는 스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뜻을 본받게 한다”를 인용하고 있다.

『열녀전』의 내용은 제1장 제4절에 다음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부인이 아기를 잉태하

18) 위의 책, 157쪽.

19) 태교신기장구대전(胎敎新記章句大全)

면 옆으로 누워 잠자지 말고, 가장자리에 앉지 말며, 한 발로 서 있지 말고, 특이한 맛이 나는 음식을 먹지 말며, 반듯하게 썰지 않은 음식을 먹지 말고, 부정한 자리에 앉지 말며, 눈으로는 현란한 색상을 보지 말고, 귀로는 요란한 음악을 듣지 말며, 밤에는 앞 못 보는 악관(樂官)으로 하여금 시(詩)를 낭송하게 하며, 군자로서 해야 할 바른 일을 이야기하도록 해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하여 자식을 낳으면 형체와 용모가 단정하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되느니라.”

끝으로 제9장 제1절에서는 가의의 『신서』 「태교」 편을 간접 인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옛날부터 태교의 법도를 쓴 옥판(玉板)을 금궤에 넣어 종묘(宗廟)에 두고 후세들에게 경계하도록 한 까닭에 태임(太任)께서 문왕을 잉태하시고는 눈으로는 혼란스런 색을 보지 않으시고,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으시며, 입으로는 불손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사주당 이씨는 태교 1년을 생후 교육 10년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여 출생할 아기의 인격은 물론 미래의 가운(家運)과도 직결된다고 했다. 아래의 인용문에는 태교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다.

아버지의 나눔, 어머니의 기름, 스승의 가르침이 한결같다. 훌륭한 의사는 병들기 전에 다스리고, 훌륭한 교육은 태어나기 전에 가르치는 것이다.

까닭에 스승의 십 년 가르침이 어머니가 열 달 뱃속에서 기름만 못하고, 어머니가 뱃속에서 열 달 기름이 아버지가 하루 나눔만 못하다.²⁰⁾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태교는 태어난 이후의 그 어떤 교육 — 현대적 의미의 가정교육, 학교교육 등 — 보다도 더 중요하며 그 영향은 매우 큰 것이다. 따라서 『태교신기』에서는 자식의 지각(知覺)이 순수하지 못함은 아버지의 허물이요, 형체와 기질이 못나고 재능이 부족함은 어머니의 허물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스승이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스승의 허물이 아니라고²¹⁾ 하였다.

그리고 태교의 목적은 당시의 이상적인 인간상인 군자(君子)를 낳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열 달을 공(功)들여서 자식을 어질게 함으로써 ‘소인(小人)’이 아닌 ‘현명한 군자(君子)’의 어머니가 되는 것²²⁾이라고 하였다.

20) 『태교신기』, 제1장 제2절

21) 『태교신기』, 제1장 제6절

22) 『태교신기』, 제5장 제2절

2. 유교의 수태관(受胎觀)과 태아 발달 단계

유교에서 수태(受胎)를 보는 관점은 다음의 인용문에서 잘 드러난다.

문: 남녀가 정(精)을 합할 때, 유기(遊氣)가 합쳐진 뒤라야 사람이 태어나는 것인데, 순임금이 날 때 아버지 고수(瞽叟)의 氣는 비록 탁하였으나 지극히 맑은 유기를 받았기 때문에 성인이 된 것입니까?

답: 그렇다. 대체로 부모의 기는 분수(分數)가 적고 천지의 기는 분수가 많다. 그런 까닭에, 고수의 탁한 기가 천지의 맑은 기를 당하지 못한 것이니, 이것이 순임금이 성인이 된 까닭이다.²³⁾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유교에서는 인간의 탄생은 남녀의 육체적 결합이 이루어질 때 떠다니는 기운인 ‘유기(遊氣)’가 결합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율곡(栗谷) 이이(李珥)는 이 유기에 대해서 “음양과 유기는 두 가지 다른 기가 아니고, 생생(生生)의 입장에서 말하면 유기라 하고 순환의 입장에서 말하면 음양이라고 한다”²⁴⁾고 하였다. 그리고 “천지 사이의 허다한 유기에는 맑고 연(軟)한 것도 있고, 맑고 굳은 것도 있다. 비록 마음에 호연의 기가 있더라도 몸의 기는 강하지 못한 자가 있다. 안회 같은 이는 맑은 기의 연한 것을 타고난 자다. 그래서 단명하였다”²⁵⁾라고 함으로써 유기(遊氣)의 성질이 맑음과 탁함, 강하고 연함의 구분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 유전의 문제에 있어서도 율곡 이이는 지극히 맑은 유기와 지극히 탁한 유기는 부모의 기가 간여할 수 없지만 보통 사람의 경우는 부모의 기가 주가 된다고 하여²⁶⁾ 기의 유전성을 말하고 있다.²⁷⁾ 여기에서 우리는 유교에서는 수태를 단순히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세력인 유기와의 결합으로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교의 수태관에서 유기(遊氣)의 의미는 다음에 살펴본 불교의 수태관에서의 중유(中有)와 비슷하다.

한편, 중국의 태교론에서 태아의 발달 단계는 북제의 의학자인 서지재(徐之才)의 『축월양태방(逐月養胎方)』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은 손사막(孫思邈)의 『천금요방(千金要方)』 속에 잘 정리되어 있다. 손사막의 『천금요방』은 중국의 의학서로서 직접적인 유교의 문헌은 아니지만 태아 발달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살펴보겠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⁸⁾

23) 이이, 《국역 율곡집 1》,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7, 446쪽.

24) 위의 책, 447쪽.

25) 같은 곳.

26) 위의 책, 449쪽.

27) 안경식, 앞의 책, 148-149쪽.

28) 孫思邈, 『千金要方』, 「養胎 第三」, 魯兆麟等点校, 『備急千金要方』,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임신 1개월을 ‘시배(始胚)’라고 하는데, 음식을 세심하게 익혀 먹어야 하며 보리를 많이 먹어야 한다. 임신 2개월을 ‘시고(始膏)’라고 하는데, 시거나 누린내 나는 것을 먹지 말고 조용한 곳에 거처해야 하고 남자가 범하지 말아야 한다. 임신 3개월은 ‘시태(始胎)’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태아 형태가 이루어지지만 고정된 형상이 아니고 외부 대상의 감응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임신 4개월은 수(水)의 정기를 받아 태아의 혈액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이때 태아의 육부가 자라는데 쌀밥과 생선을 먹어서 혈기가 활발히 움직이도록 해야 하고, 귀와 눈이 통하여 경락이 순조로워야 한다. 임신 5개월은 화(火)의 정기를 받아 태아의 기운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임신 6개월은 금(金)의 정기를 받아 근육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임신 7개월은 목(木)의 정기를 받아 태아의 골격이 성장하므로 입부는 마땅히 몸을 움직이고 사지를 흔들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임신 8개월은 토(土)의 기운을 받아 피부가 완성되는 시기이므로 마음을 조용히 하고 숨을 고요히 쉼으로써 기운이 극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신 9개월은 석(石)의 정기를 받아 모발이 완성되며 태아의 6부와 100절이 다 준비되는 시기이다. 임신 10개월은 오장(五臟)이 구비되고 육부(六腑)가 다 이루어지며 천지의 기운이 단전에 모이는 까닭에 관절과 인신(人神)이 다 구분되어지나 다만 때를 기다려 태어난다.

위의 『축월양태방』의 특징은 첫째, 이전의 태교론에 비해서 매우 과학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타난 태아의 발달 단계는 현대의 산과학(産科學)에 비해서 비과학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과학적이다. 둘째, 임신 3개월을 태교의 ‘결정적 시기’로 보았는데 이 점도 현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합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음양오행설과 도교의 양생설의 영향을 많이 받은 태교론을 형성하였다.²⁹⁾

3. 유교에서의 태교 내용

지금부터는 유교에서의 태교의 내용을 『태교신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유교에서의 태교 내용의 가장 근본인 예에 따른 태교를 살펴본 다음에 임신부가 해야하는 보는 태교, 듣는 태교, 말하는 태교, 마음가짐의 태교, 몸가짐의 태교, 음식 태교, 그리고 남편과 주위 사람들이 해야할 태교를 알아보겠다.

유교의 태교 내용은 한 마디로 ‘예(禮)’에 따른 태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예(禮)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생각하지 말며, 마음·지혜 온 몸까지 모두 정도에 따라서 자식을 기르는 것이 어머니의 도리라고 하였다.³⁰⁾ 그리고 『열녀전(烈女傳)』을 인용하여, 예를 따라서

18-21. 안경식, 앞의 책, 241-243쪽에서 재인용.

29) 안경식, 앞의 책, 243-244쪽.

태교를 하면 형체와 용모가 단정하고 재주가 뛰어난 자식을 낳는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태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는 태교³¹⁾에서는 임신부는 귀인이나 호인을 만나거나, 백옥(白玉)과 공작새 같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물건, 성현의 훈계하신 글과 신선이 허리에 찬 관대(冠帶)의 그림을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보는 태교와 관련하여 다음의 금기사항을 제시하였다. 즉, 배우가 난쟁이와 선비 혹은 원숭이 흉내를 내면서 실없이 소리를 하며 다투는 것을 흉내내는 것이나, 형벌을 주기 위해 사람을 결박지어 끌고 다니면서 괴롭히거나 살해하는 일, 잔형악질(殘形惡疾), 무지개와 천둥 번개, 일식과 월식, 별뚝이 떨어지는 것, 홍수로 물이 범람하는 것, 불이 타오르는 것, 나무가 부러지는 것, 집이 무너지는 것, 짐승들의 음란(淫亂)한 짓과 병이 들어 상한 것, 더럽고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지 말라고 하였다.

둘째, 듣는 태교³²⁾에서는 사람의 마음은 소리를 들으면 동(動)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금기사항으로 임신부는 요란한 음악과 노래, 시장의 시끄러운 소리, 여자들의 욕지거리 및 술주정뱅이의 욕설과 우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계집종들이 먼 곳의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을 듣고 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오직 마땅한 사람을 있게 하여 시(詩)를 낭송하거나 경서(經書)를 설명하게 하며, 그렇지 않으면 거문고나 비파를 타게 하여 임신부가 듣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말하는 태교에서는 임신부가 말하는 법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신부가 말하는 법도는 성낼 일이 있어도 큰 소리로 꾸짖거나 모진 말을 하지 말며, 말을 할 때 손짓을 하지 말며, 웃을 때는 잇몸이 보이지 않게 하며, 남과 더불어 희롱거리가 되는 말을 하지 말며, 일하는 사람을 몸소 꾸짖지 말며, 닭이나 개를 쫓을 일이 생겨도 몸소 꾸짖지 말며, 남을 속이지 말며, 다른 사람을 꾀방하지 말며, 남을 비방하는 꾀속말을 하지 말며, 근거 없는 말을 전하지 말며, 근거 없는 말은 전하지 말며, 당사자가 아닌 일은 말을 많이 하지 마라.”³³⁾

넷째는 마음가짐의 태교³⁴⁾이다. 어머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자식 역시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 아래, 임신부의 바른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있다. 임신부는 삼가 공경하는 마음을 간직해야 하며, 혹시라도 사람을 해치거나 미물이라도 죽을 생각을 하지 말며, 간교하게 남을 속이거나, 남의 물건을 탐하여 도둑질하거나, 질투 꾀방하려는 생각이 가슴에서 싹트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한 후라야 입에는 망령된 말이 없고, 얼굴에는 원망스런 기색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잠시라도 삼가고 공경하는 마음을 잊으면 이미 혈(血)이 잘못 흐르게 되고 이것은 아이의 혈(血)로 이어져서 아이에게도 나쁜

30) 『태교신기』, 제4장 제4절

31) 『태교신기』, 제4장 제3절

32) 『태교신기』, 제4장 제4절

33) 『태교신기』, 제4장 제6절

34) 『태교신기』, 제4장 제5절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다섯째, 몸가짐의 태교에서는 임신부가 거처와 양생에 있어서 삼가지 않으면 태(胎)를 보전하기가 위태롭다고 하였다. 이 몸가짐의 태교에는 앞에서 살펴 본 여러 가지 태교의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인이 이미 잉태하였으면 부부가 함께 잠자지 아니하며, 옷을 지나치게 따뜻하게 입지 말고, 음식은 지나치게 배부르게 먹지 말며, 잠을 많이 자거나 누워 있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때때로 보행을 하고, 차고 냉한 곳에 앉지 말며, 더러운 곳에 앉지 말고, 나쁜 냄새를 맡지 말며, 높은 곳에 있는 화장실에 가지 말고, 밤에는 문밖에 나가지 말며,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는 날은 외출하지 말고, 산이나 들에 가지 말며, 깊은 우물이나 무덤을 들여다보지 말고, 오래된 사당에 들어가지 말며, 높은 데를 오르거나 깊은 데를 내려가지 말며, 험한 길을 거닐지 말고, 무거운 것을 들지 말며, 힘든 일을 지나치게 하여 기운이 상하게 하지 말고, 함부로 침맞고 땀뜨지 말며, 함부로 탕약을 복용하지 말고, 항상 마음을 깨끗이 하고 조용히 거처하여 온화함이 알맞아야 하니, 몸과 머리 입과 눈이 한결같이 단정해야 하느니라.³⁵⁾

여섯째, 음식 태교³⁶⁾는 태아의 육체적인 성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금기사항에 대한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신부는 과일의 모양이 바르지 않은 것, 벌레 먹은 것, 썩어 떨어진 것을 먹지 말고, 참외·수박·상추·배추 등의 생채(生菜), 차가운 음료수나 밥, 쉰 음식, 부패한 어육(魚肉), 색깔이 나쁜 음식, 역겨운 냄새가 나는 음식, 설익은 음식, 제철이 아닌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으며, 고기를 밥보다 많이 먹지 말라고 하였다.

지금까지는 살펴 본 내용은 임신부가 해야 할 태교 내용이었다. 이외에도 남편과 주위 사람이 해야 할 태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남편은 언제나 서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접하고, 혹시라도 임신여겨 서로 상처를 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아내의 침실이 아니면 함부로 들어가 거처해서는 안 되고, 몸에 병이 있으면 함부로 침실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상복을 입고 함부로 침실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또한 음양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 날씨가 정상이 아닐 때라도 편안하게 쉬어서는 안 되며, 헛된 욕심이 싹트게 해서도 안 되며, 사기(邪氣)가 몸에 붙지 않게 해야 한다.³⁷⁾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임신부를 위하여 조심해야 한다. 임신부가 성내거나, 화를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³⁸⁾ 이를 통해서 임신부뿐만 아니라 남편과 주위 사람도 함께 태교를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관념과 교육론에 따라서 태교에 대한 관점 역시 달라진다. 『태

35) 『태교신기』, 제4장 제7절

36) 『태교신기』, 제4장 제12절

37) 『태교신기』, 제1장 제3절

38) 『태교신기』, 제4장 제1절

교신기』는 유학을 기본으로 한 유교의 교육론에 충실한 태교 전문저술로서 유교에서의 태교에 대한 가치관과 내용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불교의 태교관을 고찰하면서 불교의 관념과 가치관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할 것이다.

III. 불교의 태교관

1. 불교에서의 태교의 의미와 목적

불교의 태아관은 업감연기설(業感緣起說)에 근거한 윤회(輪廻) 사상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인간은 한 생(生)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명(無明)으로 인한 자신의 업(業)에 따라 윤회하기 때문에 수태되는 순간에 이전 생(生)의 정신적인 요인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³⁹⁾ 이러한 태아관은 불교의 태교관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잡아함경』에는 임신을 하면 자식을 위해 부처님께 귀의하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삼귀의(三歸依)를 가르치며, 그 아이가 자라서 지견(知見)이 생겼을 때 다시 계행(戒行)을 가르친다는 내용이 나온다.

…… 그런데 세존이시여, 나는 어떤 중생들의 주인이 아기를 배었을 때에는 그에게 ‘그 아들을 위해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과 승가에 귀의하라’고 가르칩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다시 세 곳[三歸 : 佛·法·僧]에 귀의하라고 가르치고, 그 아이가 지견(知見)이 생겼을 때에는 다시 계(戒)를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혹 중이나 하천(下賤)한 다른 사람이 아기를 배고 또 낳았을 때에도 역시 그와 같이 가르칩니다.⁴⁰⁾

위의 인용문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이미 태아교육에서부터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불교의 여러 경(經)과 논(論) — 『수행도지경』, 『불설포태경』, 『대보적경』, 『해탈도론』 — 에서 태아의 발달단계를 다양하게 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불교교육학에서는 태교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크다고 할 수 있다.⁴¹⁾ 이와 관련하여 박선영은 “불

39) 권은주, 불교가 한국 전통 아동교육에 미친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35쪽.

40) T.99(vol.2) 雜阿含經, k.47, p.340b. “世尊 然我有衆生主懷妊之時 我卽教彼 爲其子故 歸佛歸法歸比丘僧 及其生已復教三歸 及生知見復教持戒 設復婢使下賤客人懷妊 及生亦如是教”

※ “T.99(vol.2) 雜阿含經 k.47, p.340b”에서 “T.번호”는 『大正新修大藏經』에 수록된 문헌의 번호이고, “vol.번호”는 이 대장경의 제책 순서에 따른 “책(volume)번호”이다. 그리고 “k.번호”는 “권번호”이며, “a·b·c”는 각각 상단·중단·하단을 뜻한다.

41) 박선영, 〈불교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1, 1995, 45-46쪽.

교적 입장에 볼 때 교육의 본질은 지혜롭고 자비로운 자주적 인간이 되게 하는 데 있으며, 진정한 자비는 지혜의 밑받침에 의해서만 그 진가가 발휘될 수 있다”⁴²⁾고 하였다. 서우경은 이것을 불교적 관점에서 태교의 정의를 새롭게 제시할 이론적 토대가 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태교의 본질이 태아에게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하는 부모의 교육적 실천 활동이라고 볼 때, 태아에게는 아낌없이 베푸는 부모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이 바로 불교의 ‘자비’이며, 이 ‘자비’가 태아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태아에 대한 부모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부모의 지혜란 바로 태아의 교육을 위해 부모가 기울이는 교육적 행위 즉 ‘태교’라고 할 수 있다.⁴³⁾

2. 불교의 수태관(受胎觀)과 태아 발달 단계

앞의 태아관에서 보았듯이, 불교에서는 인간의 발달은 한 생(生)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 연기의 연속성으로 인해 그 자신의 업(業)에 따라 윤회되기 때문에 수태(受胎)되는 순간에 이미 이전 생(生)의 정신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임신부의 태내(胎內)에 있는 기간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⁴⁴⁾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연기설을 바탕으로 하여 수태는 부모의 정자와 난자 이외에 식(識)·식신(識神) 또는 중유(中有)라고 불리는 정신적인 요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수태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요인에 대한 기록은 『증일아함경(增壹阿含經)』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세 가지 인연이 있어야 식(識)이 태(胎)를 받게 된다. 어떤 것이 그 세 가지인가? 비구들아, 어머니가 애욕(愛欲)의 마음이 있어서 부모가 한곳에 모여 함께 머물러 잔다 하더라도, 그러나 또한 바깥에서 식(識)이 와서 호응해주지 않으면 곧 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또 식(識)이 와서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부모가 한곳에 모여 있지 않으면 역시 태는 성립되지 못한다.

또 어머니가 애욕의 마음이 없는 상태로 부모가 한곳에 모여 있을 경우, 그 때 아버지가 아무리 애욕의 마음이 왕성하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그리 간절하지 않으면 태는 성립되지 못한다. 또 부모가 한 곳에 모여 있을 경우 어머니가 아무리 애욕의 마음이 왕성하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그리 간절하지 않으면 태는 성립되지 못한다.

또 부모가 한 곳에 모여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에게 풍병(風病)이 있거나 어머니에게 냉병(冷病)이 있으면 태는 성립되지 못한다. 또 부모가 한곳에 모여 있다 하더라도 어머니에게 풍병이 있거나 아버지에게 냉병이 있으면 태는 성립되지 못한다.

42) 박선영, 《한국 가정교육의 문제 상황과 그 불교적 극복원리》,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불교학보》 31, 1994, 29쪽.

43) 서우경, 앞의 논문, 49쪽.

44) 권은주, 《불교 아동학 개론》, 개정판, 서울: 양서원, 1999, 81쪽.

또 어느 때에 부모가 한 곳에 모여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몸에 물 기운[水氣]이 지나치게 많으면 어머니에게 그런 질환이 없어도 태는 성립되지 못한다. 또 어느 때에 부모가 한 곳에 모여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상(相)에는 자식이 있으나 어머니의 상에 자식이 없으면 태는 성립되지 못한다. 또 어느 때에 부모가 한 곳에 모여 있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상에는 자식이 있으나 아버지의 상에 자식이 없으면 태는 성립되지 못한다. 또 어느 때에 부모의 상에 모두 자식이 없으면 태는 성립되지 못하느니라.

또 때로는 식신(識神)이 태에 나아가더라도 아버지가 떠나 있어 없을 경우엔 태는 성립되지 못한다. 또 어느 때에 부모가 꼭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할 것이나, 그러나 어머니가 멀리 떠나 있어 없을 경우엔 태는 성립되지 못하느니라. 또 어느 때에 부모가 한 곳에 모여 있더라도, 그러나 아버지가 몸에 위중한 병이 있을 경우, 그 때는 식신이 태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태가 성립되지 못한다. 또 어느 때에 부모가 한 곳에 모일 만하고 식신이 와서 태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위중한 병을 앓을 경우 태는 성립되지 못한다. 또 어느 때에 부모가 한 곳에 모일 만하고 식신이 와서 태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러나 부모가 모두 병을 앓을 경우 태는 성립되지 못한다.

또 비구들아, 만일 부모가 한 곳에 모여 있고 부모에게 질환이 없을 경우에만 식신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부모에게 모두 자식을 둘 상(相)이 있을 경우에 그는 곧 태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것을 일러 ‘세 가지 인연이 있어야 태가 성립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모든 비구들아, 너희들은 마땅히 방편을 구하고, 이 세 가지 인연을 끊어야 한다. 이와 같나니 모든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⁴⁵⁾

이를 통해서 불교에서는 수태를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의 화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생명체의 본질인 자성이 업의 인연에 따라 유기물질의 육체를 정자와 난자를 인식하는 기관으로 삼고 형상화되는 것이 임신이라고 보는 것이다.⁴⁶⁾

불교에서는 태아를 모체를 통해서 제공되는 모든 자극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응만

45) T.125(vol.2) 增壹阿含經, k.12, p.602c-603a. “有三因緣識來受胎 云何爲三 於是比丘 母有欲意 父母共集一處與共止宿 然復外識未應來趣便不成胎 若復欲識來趣父母不集 則非成胎 若復母人無欲父母共集一處 爾時父欲意盛母不大慍慍 則非成胎 若復父母集在一處 母欲識盛父不大慍慍 則非成胎 若復父母集在一處 父有風病母有冷病 則不成胎 若復父母集在一處 母有風病父有冷病 則非成胎 若復有時父母集在一處 父身水氣偏多母無此患 則非成胎 若復有時父母集在一處 父相有子母相無子 則不成胎 若有時父母集在一處 母相有子父相無子 則不成胎 若復有時父母俱相無子 則非成胎 若復有時識神趣胎 父行不在 則非成胎 若復有時父母應集一處 然母遠行不在 則不成胎 若復有時父母應集一處 然父身遇重患時識神來趣 則非成胎 若復有時父母應集一處 識神來趣然母身得重患 則非成胎 若復有時父母應集一處識神來趣 然復父母身俱得疾病 則非成胎 若復比丘 父母集在一處 父母無患識神來趣 然復父母俱相有兒 此則成胎 是謂有此三因緣而來受胎 是故比丘 當求方便斷三因緣 如是諸比丘當作是學”

46) 황옥자, 앞의 책, 81쪽.

하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모체에게 자극을 주거나 모체로부터 영향을 받아들이 수도 있는 적극적인 생명체로 인식한다. 즉, 태아도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태어나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살아있는 존재로서 물질이 아닌 정신적 요소를 지닌 존재임을 말한다. 이처럼 불교에서의 수태의 주체인 중유의 성질을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의성(意成)이니, 뜻에 따라 태어나고 정혈(精血)에 의함이 아닌 외부의 인연이 합하여 성립된 때문이다.

둘째는 구생(求生)이니, 항상 태어날 곳을 찾고 살피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식향(食香)이니, 향기를 맡음으로써 몸을 유지하고 태어날 곳으로 가기 때문이다.

넷째는 중유(中有)이니, 두 갈래의 중간에 있는 오온(五蘊)이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기(起)라 함이니, 태어날 곳을 향하여 잠시 일어나기 때문이다.⁴⁷⁾

또한 건달바(建達縛)이라는 명칭도 있는데, 이것은 이는 향기를 먹고 산다는 뜻⁴⁸⁾이며 인간의 육안에는 보이지 않고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볼 수 있으며, 한 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등⁴⁹⁾의 속성을 말하고 있으므로 중유가 물질이 아닌 정신적 요소임을 알 수 있다.⁵⁰⁾

그리고 『현우경』에는 인물됨이 빼어난 아들을 낳은 재상과 관상을 보는 사람과의 대화가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그 때 그 나라 왕의 이름은 바사닉(波斯匿)이요, 한 재상은 큰 부자로 매우 총명하였다. 재상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는데, 얼굴은 단정하고 몸은 뛰어나다. 재상은 아기를 보고 매우 기뻐하여 곧 관상쟁이를 불러 상을 보게 하였다. 관상쟁이는 아기 상을 보고 매우 기뻐하면서 말하였다. “이 아기의 복된 상은 사람 중에서 뛰어나고 총명하고 지혜로워 사람보다 뛰어난 덕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못내 기뻐하면서 이름을 지으라고 하였다. 관상쟁이는 물었다. “이 아기를 뱀 뒤로 어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까?” 재상은 대답하였다. “그 어미는 본래 성질이 선량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뱀 뒤로는 보통 때와 아주 달라졌다. 그래서 심성이 공순하고 남에게 덕을 베풀기를 즐겨 하며, 남의 불행을 가엾이 여기고 남의 허물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관상쟁이는 말하였다. “그것은 그 아기의 뜻입니다.”⁵¹⁾

47) T.1558(vol.29) 阿毘達磨俱舍論, k.10, p.55b. “一者意成 從意生故 非精血等所有外緣合所成故 二者求生 常喜尋察當生處故 三者食香 身資香食往生處故 四者中有 二趣中間所有蘊故 五者名起 對向當生暫時起故”

48) T.1579(vol.30) 瑜伽師地論, k.1, p.282b. “或名健達縛 尋香行故”

49) T.1558(vol.29) 阿毘達磨俱舍論, k.9, p.46c.

50) 백경임, 앞의 글, 1986, 5쪽.

위의 인용문은 임신부가 태아의 영향을 받아 변화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태아가 어머니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가치관은 바로 불교의 독특한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즉 인간은 여러 생을 거치는 동안 부모, 자식, 친구 등의 인연으로 서로 얽히며 윤회하는 평등한 생명체라는 것이다.⁵²⁾

한편, 불교에서는 태아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먼저 원시불교기에는 태아의 발달을 단계별로 나누지 않고 총괄하여 다루고 있으며, 후대에는 4기, 5기, 8기 등의 단계로 설명하기도 하며, 임신 기간 38주를 각각 1주 단위로 나누어 설명한 경전도 있다.⁵³⁾ 우선 초기경전인 『증일아함경』의 내용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처음에는 어머니 태 안에 들며	차츰차츰 엉긴 수(酥)처럼 되다가
드디어 혹처럼 되고	그런 뒤 비슷한 형상으로 변한다.
머리와 목이 먼저 생기고	다음에 차츰 손, 발이 생기며
온갖 뼈마디가 제각기 생기고	털과 손톱, 발톱, 이가 생긴다.
만일 그 어머니가 온갖 음식과	갖가지 요리를 먹으면
그 정기로써 살아가나니	태를 받은 목숨의 근본이니라.
그로써 형체가 이루어지고	모든 감각기관이 빠짐없이 갖춰져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게 되나니	태를 받는 괴로움 이리하니라. ⁵⁴⁾

이러한 『증일아함경』의 교설은 후기로 내려오면서 4기, 5기, 8기 등의 단계로 발전하는데, 여러 경전에서 묘사하고 있는 태아의 발달 단계를 주별로 구분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⁵⁵⁾

① 태아 1주, 칼라람 칼라라(kalalarāṃ kalala)기 : 정자와 난자가 화합하여 엉킴으로 인해 최초의 인간이 형성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② 태아 2주, 아르분다 아르부다(Arbunda Arbuda)기 : 정자와 난자가 화합하고 마음의

51) T.202(vol.4) 賢愚經, k.11, p.423b. “於時國王名波斯匿王 有輔相 聰明巨富其婦懷妊 生一男兒 形貌端正 容體殊絕 於時輔相 見兒歡喜 卽召相師 令占相之 相師看見 懷喜而言 是兒福相 人中挺特 聰明智辯 有踰人之德 父聞遂喜 敕爲作字 相師問言 兒受胎來 有何異事 輔相答言 其母素性 不能良善 懷妊已來 倍更異常 心性恭順 樂宣人德 慈矜苦厄 不喜說過 相師言曰 此是兒志”

52) 황옥자, 앞의 책, 1994, 89쪽.

53) 백경임, 앞의 글, 1985, 119쪽.

54) T.125(vol.2) 增壹阿含經, k.30, p.714a. “先當受胞胎 漸漸如束酥 / 遂復如息肉 後轉如像形 / 先生頭項頸 轉生手足指 / 支節各各生 髮毛爪齒成 / 若母飲食時 種種若干饌 / 精氣用活命 受胎之原本 / 形體以成滿 諸根不缺漏 / 由母得出生 受胎苦如是”

55) 황옥자, 앞의 책, 1994, 93-96쪽; 김명실, 〈불전에 나타난 태아의 형성과 발달이론 - 아동발달심리학의 태내발달이론과 비교하여 -〉,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구논집, 20, 14-16쪽.

액심이 점차 응고되어 얇은 살결(피부)이 형성되고 그 위에 살결이 덮여지게 된다.

③ 태아 3주, 폐쉬(Peši)기: 살결이 더욱 견고하게 응고되어 혈육이 생기는 상태를 의미한다.

④ 태아 4주, 가나(Ghana)기: 이때의 모습은 익은 타락처럼 유연하며 조직이 두툼하고 견고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⑤ 태아 5주, 프라샤카(Praśāka) 또는 바라카샤기: 성장이 왕성하며 마치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면 나무 숲이 무성하여 가지들이 크는 것처럼 다섯 가지 모양이 나타난다고 표현하고 있다.

⑥ 태아 6주, 케사로마나카(Kesa-roma-nakha)기: 머리카락과 터럭이 위치할 모근이 형성된다.

⑦ 태아 7주, 근위기(根位期): 7주째의 태아는 안·이·비·설·신·의 등 육체의 구성이 완전히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근위기라고 한다.

⑧ 태아 8주, 형위기(形位期): 8기설에서는 8주에서 출산까지를 총칭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제8주째의 태아만을 의미한다.

3. 불교에서의 태교 내용

불교에서의 태교의 구체적인 내용은 『태교신기』에 나타난 유교에서의 태교의 내용처럼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불교의 여러 가지 수행 방편을 통하여 불교에서의 태교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태교도 수행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 기울이는 산모의 노력은 깨달음을 궁극적 목표로 수행하는 수행승의 행위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의 수행방법이 곧 태교의 실천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한 불교의 대표적인 실천 방안의 교설을 살펴보면 사성제설(四聖諦說), 12연기설(十二緣起說), 업감연기설(業感緣起說), 8정도설, 육바라밀 등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학설들은 서로 연결되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큰 줄기는 사성제설로 설명될 수 있다.⁵⁶⁾

특히 사성제(四聖諦)는 불교에서 보는 인생의 문제와 그 해결 방법에 관한 4가지의 진리이며, 육바라밀은 생사(生死)의 고해를 건너 이상경(理想境)인 열반(涅槃)의 피안에 이르는 여섯 가지 덕목(德目)이자 보살이 수행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교의 태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사성제는 고성제(苦聖諦, dukkha), 집성제(集聖諦, samudaya), 멸성제(滅聖諦, nirodha), 도성제(道聖諦, mārga)의 네 가지 가르침을 말한다. 즉 인생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고성제의 가르침이며, 그 괴로움의 원인이 번뇌(煩惱)라고 하는 것이 집성제의 가르침이다. 번뇌가 없는 무고(無苦)의 이상세계인 열반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 멸성제이고, 그 열반의

56) 서우경, 앞의 논문, 1996, 56쪽.

이상세계에 도달하기 위한 길을 제시한 것이 도성제의 내용이다. 그리고 불교에 있어서 이상세계를 얻는 길은 인생과 우주의 참모습[眞相, 實相]을 바르게 관찰해서 아는 정견(正見)을 위시하여 바른 사유[정사(正思)]·바른 말[정어(正語)]·바른 행위[정업(正業)]·바른 생활[정명(正命)]·바른 노력[정정진(正精進)]·바른 명심(銘心)[정념(正念)]·마음의 바른 통일[정정(正定)] 등의 팔정도(八正道)를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진다.⁵⁷⁾

고성제와 관련하여 불교에서는 수태(受胎) — 즉, 태(胎)를 받는 자체 — 를 괴로움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첫째, 임신부의 몸 안에서의 태아의 생활이 실제로 괴롭다고 보고 있으며, 둘째, 윤회하는 존재로서 몸을 받는 것이 괴롭다고 보고 있다.⁵⁸⁾ 『불설포태경(佛說胞胎經)』에는 모태에 있는 태아의 고(苦)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만일 어머니가 많이 먹으면 그 아이가 불안하고, 너무 적게 먹어도 그 아이가 불안하며, 기름기가 많은 것을 먹어도 불안하고, 기름기가 없는 것을 먹어도 불안하다.”⁵⁹⁾

그리고 『장수멸죄경』에도 태아가 태(胎) 안에 있을 때에는 지옥에 있는 것과 같아서 “어머니가 더운 음식을 먹으면 뜨거운 지옥과 같고, 어머니가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한빙 지옥과 같아서 종일토록 괴로워하며 어둠 속에 갇혀 있다”⁶⁰⁾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태(胎)를 받음(受)으로 인한 괴로움은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인 인생을 고해(苦海)로 보는 관점과 연결되는 것이다.

여기서 도출해 낼 수 있는 사실은 고성제와 집성제는 태아의 상태를 뜻한다고 볼 수 있으며, 멸성제는 산모가 수행해야 할 임무임과 동시에 태교의 실천방안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태아는 모태 내에서 괴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그 원인이 되는 집(集)은 전생의 업인 중유가 모태 내에 들어옴으로서 고(苦)의 원인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산모는 고(苦)와 집(集)을 멸(滅)하는 구체적 목표인 깨달음의 근거를 12연기에서 찾아 이를 이해하여 실천하는 수단 즉 도성제(道聖諦)를 향한 태교의 실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⁶¹⁾

VI. 결 론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을 유교와 불교의 태교의 의미와 목적, 수태관(受胎觀) 및 태아의

57) 박선영, 《불교의 교육사상》, 서울: 동화출판공사, 1981, 30-31쪽.

58) 백경임, 앞의 글, 1986, 8-9쪽.

59) T.317(vol.11) 佛說胞胎經, k.1, p.889a. “假使母多食其兒不安 食太少其兒不安 食多膩其兒不安 食無膩其兒不安”

60) 학림(편), 《장수멸죄경》, 서울: 운주사, 1996, 22-23쪽.

61) 서우경, 앞의 논문, 1996, 22쪽.

발달 단계, 그리고 태교의 방법으로 비교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태교의 의미와 목적의 경우에, 유교에서는 태교의 영향이 태어난 이후의 교육보다 더 크다고 보았으며, 스승보다도 부모의 태교를 더 중요시하였다. 그리고 태교의 목적은 이상적인 인간상인 군자를 낳는 것으로 삼았다. 한편 불교에서는 업감연기설에 근거한 윤회 사상에서 불교의 태아관을 찾을 수 있는데, 인간은 업에 따라 윤회하기 때문에 수태되는 순간에 이전 생의 정신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불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태교의 목적은 지혜롭고 자비로운 자주적인 인간을 낳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수태관을 비교해 보면 유교와 불교 모두 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합 이외에 제 3의 정신적인 요소를 중요시하는 것이 드러났는데 유교에서의 유기(遊氣)와 불교의 중유(中有)가 수태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유교에서는 인간의 탄생은 남녀의 육체적 결합이 이루어질 때 떠다니는 기운인 유기(遊氣)가 결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부모의 정자와 난자 이외에 식(識), 식신(識神) 또는 중유가 있어야 수태된다고 보았다.

태아의 발달 단계는 유교의 경우에는 임신 후 1개월씩 구분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불교의 경우에는 초기 불교에서는 단계별로 나누지 않고 총괄하여 다루었다가 후대에 가서는 4기, 5기, 8기 등으로 자세하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태아의 발달 단계는 현대의 산과학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태교의 방법은 유교에서는 여러 책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었는데, 유교의 태교 방법은 ‘예(禮)’에 따르는 태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는 태교, 듣는 태교, 말하는 태교, 마음가짐의 태교, 몸가짐의 태교, 음식 태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또한 태교에 있어서 남편과 주위 사람의 영향도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불교의 태교 방법은 태교를 수행의 한 방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교의 수행 방법을 곧 태교의 실천 방법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 전통적인 태교 방법인 유교와 불교의 태교관은 서구의 태교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현대의 태교에도 그대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적인 태교를 좀 더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태교 방법을 모색하도록 해야 하겠다.

참고문헌

- 권영철, <태교신기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여성문제연구》 2, 1972, 153-178.
- 권은주, 《불교 아동학 개론》, 개정판, 서울: 양서원, 1999.
- 권은주, <인간·아동발달에 대한 불교이론 연구>, 한국불교학회, 《한국불교학》 14, 1989,

433-452.

권은주, 불교가 한국 전통 아동교육에 미친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금현수, <전통적 태교와 현대적 태교의 비교고찰>, 경산대학교 제한동의학술원, 《동서의학》 24(2), 1999, 34-52.

김동화, 《구사학 (소승불교의 유철학사상)》, 서울: 보련각, 1977.

김명실, <불전에 나타난 태아의 형성과 발달이론 -아동발달심리학의 태내발달이론과 비교하여->,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구논집, 20, 5-21.

김명실, 유식학의 심식구조에서 본 아동 성격심리의 논리적 고찰 -S.Freud와 C. G. Jung의 성격이론과 관련하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김영철, 『태교신기』에 나타난 '존심'과 '정심'의 교육적 의미, 한국도덕교육학회, 《도덕교육연구》 17(1), 2005, 133-156.

김용희, 불전에 나타난 태교사상에 관한 연구 -원시경전을 중심으로 -,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김정은, 사주당의 태교례(胎敎禮) 실현과 다생활(茶生活) 연구 -태교신기를 중심으로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두산동아 백과사전연구소, 《두산세계대백과사전》 26, 서울: 두산 동아, 1996.

류점숙, <「태교신기」 내용고찰(하)>,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3(1), 1983, 303-316.

류점숙 · 국주영, <전통태교의 현대과학적 의의>, 서강정보대학, 《논문집》 19, 2000, 87-103.

박선영, 《불교의 교육사상》, 서울: 동화출판공사, 1989.

박선영, <뇌사자의 장기이식에 대한 불교적 지평과 그 교육적 함의>,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불교학보》 30, 1993.

박선영, <한국 가정교육의 문제 상황과 그 불교적 극복원리>,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불교학보》 31, 1994, 217-247.

박선영, <불교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1, 1995, 35-59.

박선영, <불교와 부모의 자녀교육>, 한국불교학회, 《한국불교학》 18, 1993, 35-68.

박선영, <불교적 유아·아동교육의 방법적 원리 -유식불교의 훈습설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회, 《한국불교학》 21, 1996, 33-60.

박용옥, <한국에 있어서의 전통적 여성관 -이사주당과 『태교신기(胎敎新記)』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학연구소, 《이화사학연구》 16, 1985, 1-5.

백경임, <불교적 관점에서 본 수태·타태·출산>, 한국아동학회, 《아동학보》 7(1), 1986, 49-65.

백경임, <불전의 태아관 -태아발달단계설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회, 《한국불교학》 10, 1985, 113-133.

백경임, <불타의 재가아동관>, 한국아동학회, 《아동학회지》 2, 1981, 55-66.

- 백경임, 〈인공임신중절의 교리적 조명〉, 전한국불교여성회(편), 《불교의 여성론》, 서울: 보림사, 1988, 133-140.
- 백경임, 〈태교에 대한 부친의 인식 및 실천에 관한 조사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동국대학교 논문집》 24, 1985, 215-247.
- 백경임, 원시경전을 중심으로 살펴본 불타의 아동관,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 사주당 이씨, 《태교신기》, 예천: 채한조방.
- 서우경, 불전에 나타난 태아의 생명존중관과 태교,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석성우, 《태교》, 서울: 토방, 1996.
- 손인수, 《한국여성교육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77.
- 신수자, 전통 태교문화와 현대 태교문화 비교 - 「태교신기」와 문화기술을 중심으로 -,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신정균, 《불교와 의학》, 서울: 동국대학교 부설 역경원, 1983.
- 안경식, 《한국 전통 아동교육사상》, 서울: 학지사, 2005.
- 여정희, 「태교신기」의 태교사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오형근, 유가론에 나타난 태아관, 《유식과 심식사상 연구》, 서울: 불교사상사, 1989.
- 오형근, 〈유식학상의 중유사상과 아뢰야식〉, 한국불교학회, 《한국불교학》 7, 1982, 11-39
- 오형근, 〈소승론상의 중유설에 대한 고찰〉,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불교학보》 18, 1981, 95-122.
- 유안진, 《한국의 전통육아방식》,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 유안진, 〈유교사회의 가정교육〉,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편), 《교육학 대백과 사전》, 춘천: 하우동설, 1993-1998.
- 이원호, 《태교 - 태중보육의 현대적 이해 - 》, 서울: 박영사, 1977.
- 이홍우, 《증보 지식의 구조와 교과》, 서울: 교육과학사, 2002.
- 이홍우, 〈전통 가정교육의 방법적 원리〉, 이계학 외,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 연구논총 93-18,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131-193.
- 이홍우, 〈파이데라스테이아와 태교: 교육의 원초적 세력을 찾아서〉, 한국교육학회 도덕교육연구회, 《도덕교육연구》 4, 1990, 1-19.
- 임창경·박경, 〈동양의학적 태교에 대한 고찰〉, 원광대학교 한의학연구소, 《원광한의학》 2(1), 1992, 271-292.
- 장정호, 〈유학교육론의 관점에서 본 『태교신기(胎敎新記)』의 태교론〉,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50, 2005, 475-502.
- 전진우·이호승, 〈태교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의료기공학회, 《대한의료기공학회지》 3(1), 1999, 105-119.

- 정양완, 〈『태교신기(胎敎新記)』에 대하여〉, 국립국어연구원, 《새국어생활》 10(3), 2000, 77-98.
- 정정숙, 〈불교교육에서 살펴 본 아동과 그 교육에 대하여: 불타사상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림회, 《석림》 19, 1985, 85-95.
- 정진자, 〈우리나라 전통교육방법이 발달장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I)- 태교를 중심으로 -〉, 한국지체부자유아교육학회, 《중복·지체불자유아교육》 36, 2000, 69-95.
- 주정일, 《아동발달학》, 증정판, 서울: 교문사, 1979.
- 지일자, 〈佛敎와 人道 一. 胎敎는 佛敎가 第一〉, 조선불교월보사, 《조선불교월보》 6, 1911, 13-16.
- 진성태, 〈태교에 관한 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20(2), 1981, 163-179.
- 최범훈, 〈사주당의 [태교신기(胎敎新記)]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선청어문》 16(1), 1988, 400-411.
- 학림(편), 《장수멸죄경》, 서울: 운주사, 1996.
- 황옥자, 《불교아동교육론》, 서울: 불교시대사, 1994.
- 황옥자, 〈불교에서 본 유아교육의 부모역할 및 부모관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동국논총》 31, 1992, 297-325.
- 황옥자, 〈불교의 아동교육철학〉, 《동국논총》 14, 1995.
- 황옥자, 〈유아기의 종교교육에 관한 교사의 종교인식 및 전망〉,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9, 1999.

원고접수: 2006년 5월 7일 1차심사: 5월 11일 게재승인일: 6월 9일

연구자 소개: 예철해

① 전공: 교육철학·교육사, 종교교육/ 소속: 동국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전임연구원

② 관심영역: 한국 근·현대교육사, 초기불교의 교육사상, 불교교육학

③ 주요논저: 《듀이의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의 구성 원리》, 《듀이 교육이론의 연구 동향과 과제: 1990년대 이후의 새로운 접근과 재해석을 중심으로》

④ E-mail: chye@dongguk.edu

Abstract

The Educational Implication of the Viewpoint of Prenatal Training in Confucianism and Buddhism

Ye, Cheol-Hae
(Dongguk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implication of the viewpoint of prenatal training of Confucianism and Buddhism. According to the aim of this study, I studied the meaning and purpose of the prenatal training of Confucianism and Buddhism, ferti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unborn child, and the practice of prenatal training.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ly, the purpose of the prenatal training of Confucianism is to get a man of honor(君子) who is the ideal human being of Confucianism and Buddhism is to bear a wise and merciful human being. Secondly, both of them emphasize the third element which is spiritual existence, namely Yu-Gi(遊氣) in Confucianism and Jung-Yu(中有) in Buddhism. Thirdly, in the case of the development of unborn child, Confucianism is more concrete than Buddhism. And the method of prenatal training in Confucianism is more specific than that of Buddhism.

Key words : prenatal training, prenatal training of Confucianism, prenatal training of Buddhism, fertilization, unborn child, development of unborn child